

출장 복명서

신윤정 연구위원, 인구정책연구실

1. 출장 개요

□ 목적: KIHASA-INED 국제공동비교연구 2차 Committee Board Meeting 및 유럽인구학회의 아시아인구학회 초청 세션 발표

□ 일시: 2018년 6월 4일(월) ~ 10일(일) (6박 7일)

□ 방문 국가 및 장소: 벨기에 브뤼셀, Vrije Universiteit 유럽인구학회
회장

□ 주요 일정

년월일	행선지	활동사항
2018. 6. 4 (월)	한국 인천-벨기에 브뤼셀	이동
2018. 6.5 (화)	벨기에 브뤼셀	KIHASA-INED 국제공동비교연구 2차 Committee Board Meeting 참석
2018. 6.5 (수)	벨기에 브뤼셀	유럽인구학회 개회식 및 GGP 파트너 연차회의 참석
2018. 6.6 (목)	벨기에 브뤼셀	아시아인구학회 초청세션 구두 발표, Poster Session 1 발표
2018. 6.7 (금)	벨기에 브뤼셀	세션 참석
2018. 6.8 (토)	벨기에 브뤼셀	폐회식 및 리셉션 참석
2018. 6. 9 (일)	벨기에 브뤼셀 - 한국 인천	이동

2. 일정별 주요 논의 사항

1) KIHASA-INED 국제공동비교연구 2차 Committee Board Meeting

□ 일시: 2018년 6월 5일 (화) 9:00 ~ 18:00

□ 장소: Vrije Universiteit Brussels, building D-room D3.06
(<http://www.epc2018.be/program/side-meetings>)

□ 참석자 명단

이름	소속	국가명
Laurent TOULEMON	INED	프랑스
Sarah BRAUNER-OTTO	McGill University	캐나다
Eva BEAUJOUAN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오스트리아
Alice CHENG	Institute of Sociology, Academia Sinica	대만
Minja Kim CHOE	East-West Center	미국
Ann H. GAUTHIER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네덜란드
Yoon-Jeong SHIN	KIHASA	한국
Nathalie LE BOUTEILLEC	Universite de Picadie Jules-Verne	스웨덴
Tomas SOBOTKA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체코
Zsolt SPEDER	Hungarian Demographic Research Institute	헝가리
Stuart BASTEN*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홍콩
Setsuta FUKUDA*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일본
Olivier THVENON**	OECD	프랑스
Arnstein AASSVE**	University of Bocconi	이탈리아

주) *개인 일정 관계로 추후 개별 미팅, **Skype를 이용하여 회의 참석

- 본 회의는 지난 2018년 1월 18~19일 1차 Committee Board Meeting (INED, Paris)에서 논의 된 사항에 대한 후속 회의로서 연구 주제와 집필진을 확정하고 원고 제출 마감일 및 연구 성과 발표를 위한 국제 회의(2018년 12월 11~13일, OECD, INED, Paris)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음

- KIHASA-INED 국제공동비교연구는 2015~2016년 기간 동안 수행한 KIHASA-EWC 연구의 연장선에서 KIHASA-EWC 연구가 도출한 주요 결과를 기초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족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갖는 효과성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심각한 저출산 및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에 대해 실질적이고도 유용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KIHASA-EWC 연구에서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출산율 현황과 정책 추진 사항을 분석하였던 반면, KIHASA-INED 연구에서는 주요한 정책별 (예를들면 육아휴직 정책, 보육 정책, 주거 정책, 교육비 지원 정책 등)로 대표적인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책 효과성을 검증하여 제시하고자 함
- 주요 분석 방법론으로 계량경제학적인 모형 추정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관련된 주제와 이용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 내용에 대한 질적인 분석, 서베이 조사 자료 결과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등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할 예정임
- 특히 KIHASA-INED 연구에서는 경직적인 노동 시장 구조,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비 지출, 결혼에 대한 보수적인 관념, 양성 평등 및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이 어려운 한국 사회의 특수한 배경을 기

반으로 유럽 국가와는 차별적인 한국적인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사항을 강구하고자 함

□ 출산율과 가족주의의 상호 관계에 있어 과거 보수적인 가족주의가 강했던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던 현상에서 최근에 양성평등 및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유럽 국가의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경향의 반전이 한국 사회에 갖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함. 이러한 배경 하에 연구의 주요 핵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 양성 평등, 노동시장 정책, 육아 휴직, 주거 정책,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가족 정책 일반
- 보육 서비스, 아동권, 교육 체계 등 자녀 양육 관련 정책
- 결혼과 자녀 출산, 비혼 출산, 규범과 가치, 출산에 대한 개인적인 관념, 정부 및 정책에 대한 신뢰

□ 집필진별 주요 주제 (안)

이름	원고 주제
Laurent TOULEMON	가족의 다양성과 출산
Sarah BRAUNER-OTTO	주거 정책
Eva BEAUJOUAN	출산에 대한 가치, 결혼 관념과 자녀 출산
Alice CHENG	육아 휴직 정책
Yoon-Jeong SHIN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 현황과 인구 정책
Nathalie LE BOUTEILLEC	보육 정책
Tomas SOBOTKA	유럽 국가에서 아시아 이민자의 출산 현황
Zsolt SPEDER	이상적인 자녀 수 및 출산 의도
Stuart BASTEN	중화권 국가의 저출산과 정책 현황
Setsuta FUKUDA	자녀 교육비용과 저출산

Arnstein AASSVE	국가 신뢰 수준과 저출산
Minja Kim CHOE	peer review
Ann H. GAUTHIER	peer review
Olivier THVENON	peer review

□ 향후 추진 계획

- 2018년 10월 말: 최종 원고 제출
- 2018년 12월 11~13일: 연구 성과 발표 국제 세미나
 - 2018년 12월 12일: 정책 세미나 (OECD 본부)
 - 2018년 12월 11, 13일: 연구 세미나 (INED)

2) 2018년 6월 6일 수요일

- The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GGP) Council of Partners Annual Meeting 참석
-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과 젠더에 대한 패널 조사인 GGP 연차 회의에 참석하여 GGP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현황, 대상 국가 확대 동향을 파악함
-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유일하게 GGP에 참석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 국가 간의 비교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여성가족패널이 GGP와 유사한 자료로서 두 데이터 간의 비교 가능성을 검증한 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패널을 관리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대해 데이터 공개 및 비교 가능성 연구 협조를 의뢰해 달하는 요청을 전달 받음
- 제4차 아시아 인구학회(2018년 7월 11일~14일, 중국 상해)에 아시아지역 미팅을 개최하여 GGP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유럽인구학회 개최식 및 환영 리셉션 참석

2) 2018년 6월 7일 목요일

- Poster Session 1 발표
 - 발표 제목 “Changes in Homogamy and Heterogamy in the Era of Low Fertility of Korea”
 - 한국 청년들의 교육 수준 향상에 따라 동질혼 및 이질혼의 구성이 변화되고 있으며, 과거 높았던 승혼에 대한 선호는 감소하고 강혼에 대한 부정적인 선호는 악화되고 있으며 동질혼에 대한 선호는 안정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서구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일본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연구 과제로서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동질혼 및 이질혼의 추이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사회의 경우 과거 출산율이 높았던 시기에 사회계층별로

차별성을 보이던 평균 자녀 수는 저출산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계층별 출산율의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는 시사점이 도출

□ Changing Marriage Patterns and Family Life in Asia: APA
invited Session

○ 발표 제목: Time spent on housework and childcare of
Korean couples

- 지속되고 있는 가정 내 보수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국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본 연
구는 2004~2014 기간 동안 수집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를
분석하여 미취학 자녀를 가진 30~40대 부부의 자녀 돌봄 시
간과 가정관리 시간의 변화를 분석함
- 남성들의 자녀 돌봄 시간과 가정 관리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여
전히 여성들이 자녀 양육과 가정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음. 자녀 양육과 가정 관리 시간의 증가는 사회경제학적
특성인 구조적인 요인 보다 관념과 인식인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 양육 시간과 가정 관리 시간이 늘어 났다고 하는 것은 하
루 행동 중 감소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함. 감소된 시간의 행
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행동을 함에 있어 자녀와 함께 행동한 경우도 자녀
돌봄 시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돌봄이 아닌 다른 행
동을 함에 있어 자녀와 함께 한 행동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자
녀와 함께 한 행동도 자녀 돌봄 시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2018년 6월 8일 금요일

- “Transition to Parenthood,” “Fertility trend and prospect,”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Fertility desires and
intentions“ 세션 참석 및 논의

2) 2018년 6월 9일 토요일

- 오전 세션 “Fertility in Times of Economic Uncertainty”,
“Education and Fertility,” 참석 및 논의, 폐회식, 리셉션 참석

3. 주요 관찰 사항

- 2018년도 유럽 인구 학회는 “Population, Diversity and
Inequality” 라는 주제 하에 인구, 출산, 가족, 이민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함
- 다양해져 가고 있는 유럽의 인구 및 가족 구조와 이민자의 유입
증가에 따라 계층별 사회적 형평성의 강화가 유럽의 지속 가능성
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다문화 사회로 진행
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이 이미 경험한 인구구조 변화 문
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의 연구 성과물과 정책적인 시사점

이 한국 사회에 주요한 함의점을 주고 있음

○ 본 학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 가족 구조의 다양화, 출산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여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에 대해 유럽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었음

- 저출산인구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조 및 인구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 통합적인 시각을 가진 정책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 제공

□ 아시아인구학회 초청 세션에 다수의 우수한 유럽 인구학자 들이 참여 (Tomas Sobotka, Anne H. Gauthier, Zsolt Speder, Nico Van Nimwegen 등) 하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저출산 및 인구 구조 변화에 관심을 보인 바,

○ 향후 유럽 국가 연구자들과 아시아 연구자들 간의 공고한 연구 협력을 통해 한국의 출산 및 인구 연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저출산 현상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유럽 사회는 다양한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출산 및 가족 구조 변화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바, 한국도 이러한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 보다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